

좋은 건축, 좋은 음악

Good Architecture, Good Music



김순배 | Kim, Soon Bae
피아니스트, 음악칼럼니스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현대 피아노 작품들의 국내 초연을 비롯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주회평, 음반평, 음악 관련 아티클 등을 쓰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한민대학교 교수, USC 방문교수,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초청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세대 피아노 페다고지 대학원 겸임교수와 한국피아노연주와 교수법협회(k3pa)대표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에세이집 <클래식을 좋아하세요?>가 있다.

<웹주소 : <http://piano21c.net>
· <http://k3pa.co.kr>>

건축과 음악은 여러 모로 닮았다. 닮은 점을 떠올리다 보면 마치 한 피를 나눈 형제 같다는 생각까지도 든다. 하모니, 리듬, 구조(structure) 또 디테일과 전체 등은 모두 음악과 건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음악과 건축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 곧바로 삶의 현장에 합류했다. 건축은 생활의 영위를 위한 필요의 측면이 강하고, 음악은 본능적 표현의 충족을 위한 방식이었기는 하다. 무엇보다도 두 분야는 '구조'라는 최대의 공통분모를 가진다. 즉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엮어서 만든' 구조물이 건축이고 음악이다. 그런 면에서 '날림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도 두 분야의 공통점이다.

음악은 창작과 그것의 재현 즉 연주라는 이원적 차원으로 이루어지지만 두 작업 모두에 걸쳐 '날림'은 언제라도 출현한다. 음악과 건축은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스타일을 달리한다. 미술이나 문학 같은 장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만 건축과 음악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변천의 모델이다. 둘 다 당대에 진행되는 급진적 기법은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지나치게 '최신식'인 건물이나 음악을 사람들은 그다지 편안해하지 않는다.

구조를 얘기할 때 전체적인 큰 구도와 그것을 채우는 디테일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에 있어서도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기본 골조나 큰 단위로 나아가기 전의 자잘한 구성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음악이나 건축이나 사실 사용하는 재료의 측면에서는 '이미 있는 것들'이 제공하는 범주를 넘기는 힘들다. 신소재의 개발이나 창의적 실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아방가르드적 천재들이 아니고서는 대략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의 기본재료가 제대로 된 양질의 것, 예컨대 질 좋고 단단한 벽돌 한 장이나 음표 하나 하나의 명확한 자리매김(연주자 입장에서 각 구성음에 대한 완벽한 사전준비) 등이 전체의 밑바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작곡가는 베토벤이다. 그가 유명한 '운명 교향곡'의 주제 '뚝뚝뚝뚝'의 네 음 모티브를 확정하기 전에 행했던 무수한 퇴고의 흔적을 보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재료 선정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건축사가 연상된다. 그러나 훌륭한 기본재료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배치되는 과정의 중요성은 그에 못지않다.

벽과 바닥과 천정이 만나는 지점의 균형과 아름다움은 음악에서 자연스러운 프레이즈들의 연결 상태로 비유해 볼 수 있다. 재료들의 유기적 흐름과 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 전체적 연결의 타당성을 보는 '거시적 시각'은 건축에서도 그렇지만 연주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연주자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건축은 현장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의 도면을 먼저 제작한다. 연주자들이 건축사들로부터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다. 만일 전체 도면을 참조해가며 작업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처음 의도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나올 위험이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너무 '철학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

하지만 음악도 건축도 모두 철학이 아니던가?

'영혼 없는' 연주를 듣고 내심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사의 정신(spirit)이 깃들지 않은 건물은 오래도록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에도 동의할 것이다.

있다. 다행인 것은 '리노베이션'이 두 분야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새로운 컨셉과 재질로 보수한다든가 때로는 구조자체도 과감히 변경하는 일련의 작업들처럼 작곡자의 입장에서 한 작품을 개보수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연주자도 작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수록 이전보다 나은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이다.

음악과 건축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오르는 작곡가와 작품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그가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다. 주제가 나온 후 30개의 각기 다른 변주곡으로 이어지는 이 곡은 3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건축물과 흡사하다. 건물주는 물론 바흐다. 그런데 그는 매우 관대한 집주인이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열려 있는 집이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그 안의 기둥과 벽 그리고 창문과 바닥을 보고 만지는 만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나아가서 맘에 드는 재질로 그 집의 느낌을 바꾸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없이 열려 있다. 집주인은 그런 방문자들의 자유의지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 눈치이다.

탄탄하게 설계된 불멸의 집은 뼈대만 흔들리지 않으면 벽지나 대리석의 질감이나 색깔을 좀 바꾼다고 해도 큰 일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집은 새롭거나 맘에 드는 소재로 리노베이션 해도 괜찮다. 워낙 튼튼히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본질이 흔들릴 염려는 없다. 원래 피아노와 같은 건반악기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작품은 그래서 수십 종에 이르는 변종 버전을 자랑한다.

현악사중주, 오케스트라, 금관양상블, 아코디언, 하프시코드, 오르간 등 다양한 매체가 '골드베르크'를 연주한다. 음악사상 이렇게 자유로운 작품은 또 없다.

연주자에 따라 연주시간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즉 어떤 방에서 좀 더 오래 머물 것인가는 연주자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무한히 열려 있는 음악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너무 '철학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다. 하지만 음악도 건축도 모두 철학이 아니던가? '영혼 없는' 연주를 듣고 내심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사의 정신(spirit)이 깃들지 않은 건물은 오래도록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에도 동의할 것이다.

음악과 건축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건축이 사람에게 끼치는 임팩트는 지대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건축 그리고 음악, 두 분야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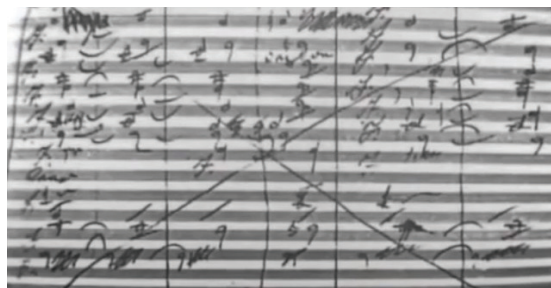


좌 :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표지에 건축물 사진이 있다.

우 : 금관양상블 '캐나다인 브라스'의 골드베르크 연주는 그 청량한 사운드로 유명하다.



'열려 있는' 공간에 피아노가 있다. 마치 어서 변주곡을 연주하라는 듯~



베토벤 운명교향곡 3악장 초고. 가운데 커다란 X자 표시를 보세요.